

장성 갈재 옛길,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백양사 백학봉 이어 두번째 ‘명승’ 지정 예고
郡, 관리정비계획 수립 학술조사도 추진 방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서 전북 정읍 시 방면으로 이어지는 갈재 옛길이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명칭은 ‘삼남대로 갈재’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은 장성군 갈재를 포함한 총 6개소의 옛길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옛길’은 말 그대로 예전부터 다니던 길을 뜻한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의 원활한 이동과 지역 구분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 주로 쓰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상

업의 발달과 맞물려 왕래가 활발해졌다. 이용이 빈번한 도로는 ‘대로’로 승격됐는데 이때 장성군 갈재가 포함돼 있는 삼남대로를 비롯한 9개 대로 체계가 완성됐다. 대로들은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연결됐으며 주요 민간교역로로 기능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대로가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신작로가 되고 말았다. 또 이후에는 남아있던 옛길 중 다수가 임도(林道)로 활용되면서 원형이 보존돼 있는 곳이 손에 꼽히게

됐다.
이번에 명승 지정 예고된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 옛길은 한양에서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으로 이동하는 삼남대로 970리 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갈재는 갈대가 많은 고갯길이란 뜻으로 고지도에는 ‘노령(蘆嶺)’ 즉 갈대가 울창한 산으로 표기돼 있다.
인접 지역 노령산맥의 명칭이 갈재에서 비롯됐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대목이다.
과거의 휴길, 돌길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으며 고갯길 정상에는 장성 부사 홍병위를 기억하기 위해 새겨놓은 불망비(不忘碑·1872년)가 남아 있다. 갈재 옛길이 장성군의 관리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현종이 거란족의 침략을 피해 나주로 피난할 때 건넌길 기록이 있으며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농민들이 정읍으로 이동하기 위해 갈재를 넘었다고 전해진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갈재 옛길의 역사적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명승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삼남대로 갈재 옛길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장성군은 총 13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봉암서원, 320년 관습의 벽 넘었다

추향제 초헌·아헌·종헌관 모두 여성이 맡아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만든 망암 변이 중 선생을 배향하는 장성 봉암서원에서 지난 26일 뜻깊은 추향제가 열렸다.
특히 서원 창건 이후 최초로 초헌·아헌·종헌관을 여성이 맡아 화제를 모았다.
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지정되는 제관(제사를 맡은 관원)이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구분된다.
이번 추향제에서는 정춘자 여성유도회 장성지회장과 강숙영 문향고등학교 교장, 김현주 서삼초등학교 교장이 각각 초헌·아헌·종헌관을 맡았다. 봉암서원이 세워진 1697년 이래 무려 320여 년 만에 관습의 벽을 넘어섰다. <사진>
여성이 헌관을 맡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 추계향사에서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이 초헌관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세 헌관을 모두 여성이 맡은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워크숍...화합·소통의 장 마련

담양군은 27일 “최근 농업기술센터 내 여성농업인 생활문화센터에서 귀농·귀촌인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회원 18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는 세라믹핸드페인팅 체험과 함께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진 황금알 농법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체험을 통해 귀농·귀촌인 간 화합·소통을 도모하고 ‘황금알 농법’ 교육을 통해 품질 향상, 수량 증대와 관련된 농업 정보를 취득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친목 도모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과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장성군은 최근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장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전통시장에서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들은 황룡시장, 북이 사거리시장, 삼계 사창시장을 찾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 공감대 형성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장성군 제공>

해동문화예술촌 하반기 프로그램 다채

전시·공연·교육 등 담양군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하반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각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아래아 갤러리에서 10월 31일까지 ‘기억의 주름’ 전시가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해 소동동에서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기억’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로 구성

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점.하나:공존 불가능의 교차점’ 전시가 진행 중이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앙코르해동’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문 예술인 초청으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 ‘메타버스’를 통해 지역 내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문공연예술을 선보

일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상상나라’, ‘학교 밖 공연예술’과 전문 인문강좌 ‘카페필로’, ‘톡톡톡(공공미술의 현장)’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상상나라와 학교 밖 공연예술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미술과 음악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

획됐다.
카페필로는 도시·예술·여행을 주제로 한 인문예술 교양강좌, 톡톡톡은 공공미술 전문가들의 답론을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 유도, 전문가·행정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동문화예술촌의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 수 제한, 사전예약제, 거리 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문화예술촌팀 오문석 담당자 070-7706-0736) 페이스북 및 전자우편(damyanghd@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군,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호응

미술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문화재단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예술 동호회 프로그램 ‘모두 다 가치’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남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

하는 ‘모두 다 가치’는 건강한 예술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과 협력하고 예술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선정된 20개 동호회(미술, 도예, 가족공예, 퀼트, 규방공예, 문학, 원예, 목공예, 합창, 민속창극, 대금 등)가 활동을 진행하며 예술동호회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담양=정승균 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